

# 9·11 테러 5주년

### 3 끊이지 않는 음모론

## 진실규명·재판 흐지부지... 의혹만 증폭

'9·11 테러'의 진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테러와 관련된 기소된 용의자들에게 대한 재판에서 결정적인 혐의점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주모자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미국의 추적 의지도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듯한 인상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 라덴은 워낙 '신출귀몰'한 인물인데다 익숙한 지형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활동하는 탓에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된 9·11 테러 관련 용의자들에게 대한 재판에서 모로코계 프랑스 극좌자 자카리아스 무사위가 유일하게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을 뿐 다른 용의자들은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9·11테러 5주년인 11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사는 한 여인이 세계무역센터 테러 희생자를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십자가 기념물을 딸과 함께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향소함으로써 상급 법원의 재판을 남겨놓고 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6월 9·11 테러 가담 혐의를 받아들인 모로코 출신 독일 유학생 압델가니 음주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독일 연방법원은 음주디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2004년 2월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 음모설 동영상 '루즈 체인지' 신드롬

9·11 이후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은 수십명의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들 중 정식 기소된 경우는 무사위, 모타사렛, 음주디 등 3명 뿐이며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이 9·11 테러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처럼 관련 재판에서 진실 규명 작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2001년 9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음모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음모론의 핵심은 9·11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붕괴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배후일 수 있으며, 빌딩 붕괴는 항공기 충돌 테러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설치된 폭약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의 포털 사이트에서 9·11 테러의 음모설을 파헤친 동영상 '루즈 체인지(loose change)'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동영상은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조작했다는 음모설을 주장하고 있다.

9·11 테러에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난 2001년 이후 비공식 모임을 결성, 인터넷이나 논문, 저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500여명이 모여 회의를 열기도 했다. <끝>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국 군사비 지출 세계 8위

### 미 CIA, 작년 210억 5천만弗... 북한은 50억弗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5년 210억5천만달러로 세계 8위, 북한은 2002년 추정치 50억달러로 세계 22위.

미 중앙정보국(CIA)이 7일자로 갱신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 미국이 5천181억달러로 단연 세계 1위이고, 이어 중국이 814억7천만달러로 2위다. 3위는 450억달러의 프랑스, 일본은 443억달러로 영국(428억3천65만

달러)보다 앞선 4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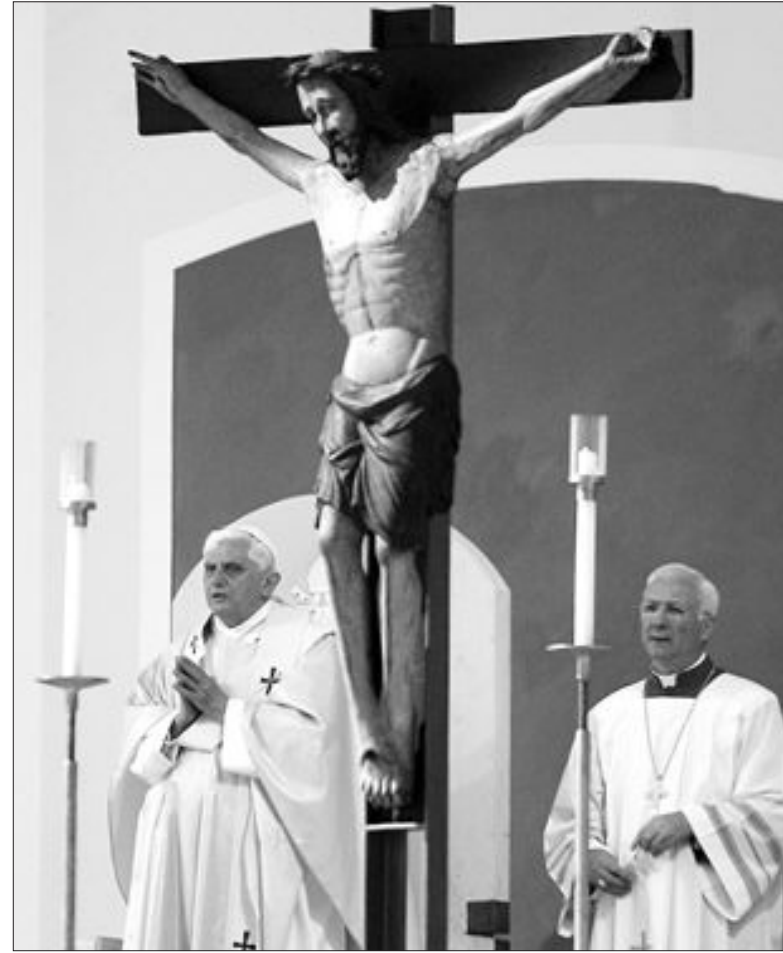
CIA는 월드 팩트북에 있는 항목중 일부의 경우 항목별 '국가 순위' 표를 따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환율로 계산한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9천65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에 이어 14위, 북한

은 400억달러로 88위로 나타났다.

GDP 실질 성장률은 2005년 한국 3.90%로 114위, 북한도 1% 성장 196위이고, 1인당 GDP는 한국 2만400달러로 50위(233개국중), 북한은 1천700달러로 194위.

GDP 대비 공공부채는 한국 20%로 114개국중 96위에 기록돼 낮은 편이고, 일본은 158%로 4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외부채는 1천539억달러로 25위. 외환보유고의 경우 한국은 2천104억달러로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4위였다. /연합뉴스



교황, 모국서 미사 집전

교황 서임 이후 두번째로 모국 독일을 방문한 베네딕토 16세가 그의 고향 인근인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고는 아이가 오줌싸개 되기 쉽다

코를 고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잠자다 침대에 오줌을 쌀 가능성이 4배나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리스 라리사 대학병원의 에마노우엘 알렉소포울로스 박사 연구팀은 '비뇨기학' 8월 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코골이와 잠을 자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야뇨증 간에는 서로 연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골이와 야뇨증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진은 5~14세 어린이 1천821명을 연구했으며, 이중 2.4%가 야뇨증 병력이 있었고 1주에 3번 이상 코를 고는 전체의 7.4%는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어린이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 '신뢰 추락' 美 최대 패자... '신도 결집' 지하드 최대 승자

### ■9·11 테러 5주년 대차 대조표

9·11 테러 이후 지난 5년간 달라진 세계 정치 지형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인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선임 연구원 아이보 달더는 11일 정치 및 외교 전문가 인터넷 카페인 'TPM 카페'(TPMCafe.com)의 자신의 블로그에 '9·11 5주년 대차 대조표'를 올렸다. 그는 미국을 최대 패자로, '이슬람 지하드'를 최대 승자로 꼽았다.

○ 승자들=9·11 이후 세계적 분쟁에서 가장 큰 승자는 '별장속 이념'(niche ideology)에 불과했다가 수백만 이슬람교도들의 지지를 받게 된 '이슬람 지하드'이다. 또 다른 승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 3개국이다.

마지막 승자는 중국. 지난 5년간 동남 아시아에서 남미,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기 까지 모든 나라들이 점점 더 미국보다는 중국을 상대하고 싶어할 정도로 세계적인 '선수(player)로 부상하게 됐다.

○ 패자들=첫번째 패자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총재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는 이슬람 지하드가 이슬람 세계에서 수용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금은 조직이 와해되고 보좌관들은 살해되거나 체포된 가운데 이쪽 저쪽의 동굴로 도피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 60여년간 미국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선도할 수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미국의 힘, 목표, 원칙들에 대한 신뢰는 적들에게는 물론 우방들 사이에서도 부식됐다. /연합뉴스

## 시리아 美 대사관 수류탄 피격 5명 사망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12일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모두 5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장괴한 4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다마스쿠스 중심부에 있는 미 대사관 공격을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괴한 4명이 미 대사관을 지키던 보안군에 모두 사살됐으며, 시리아인 경비병 1명이 숨졌다. 그러나 미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미 대사관에 여러 발의 수류탄이 투척 됐으며 사건 발생 경위를 다소 다르게 전했다. /연합뉴스

## 싱가포르 총리 월급 5만弗 '세계 최고'

### 카스트로 26弗, 후진타오 395弗 '쥐꼬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받는 봉급은 그 나라의 영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컨설팅회사 헤이그룹이 최근 각국 수반들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가 5만달러(약 4천800만원)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언론이 12일 전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3만3천500달러(3천200만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16만8천루블(600만원)보다 훨씬 많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추산한 노무현 대통령의 월급은 대략 1천700만원 정도로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한다. 유럽 국가 수반 중에는 아일랜드

의 메리 맥컬리스 대통령이 2만9천700달러(2천8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르비아 보리스 타딕 대통령이 불과 800달러(77만원)로 가장 낮았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월급이 26달러(2만5천원)에 불과했다. 40년 집권 기간에 한번도 월급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월급도 3천146위안(38만원)으로 '쥐꼬리 봉급'을 받는 수반급에 속했다. /연합뉴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공법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공법**

- 국내 최대 규모까지 공사 가능
- 작업공법 표준화 시공 시공에서 수월
- 기존 시설물 보강공사, 상층부 보강공사
- 효율 보강기간 단축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공법**

- 기존 시설물 보강공사, 상층부 보강공사
- 작업공법 표준화 시공 시공에서 수월
- 기존 시설물 보강공사, 상층부 보강공사
- 효율 보강기간 단축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공법**

- 기존 시설물 보강공사, 상층부 보강공사
- 작업공법 표준화 시공 시공에서 수월
- 기존 시설물 보강공사, 상층부 보강공사
- 효율 보강기간 단축

www.jkch.co.kr

**(株) 행복출발**

행복출발은... (株) 행복출발은... (株) 행복출발은...

www.jkch.co.kr

(061) 527-3388